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 핵심표어를 생태적 관점으로 확장

■ 광주벚엘교회 6월 7일 환경주일 예배 / 글=이창열 목사 (광주벚엘교회 3040교구 담당)

환경의 날과 창조 세계의 위기 매년 6월 5일은 전 세계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고 행동을 촉구하는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이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유엔(UN)이 공식 제정한 날이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생물다양성 상실 등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발맞추어 한국 기독교는 1984년 처음 환경주일을 제정하여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공식 제정하여 올해로 35년째 지켜오고 있다(이후 2013년 제98회 총회부터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키고 있다). 이는 생태계 파괴가 단순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에 대한 심각한 훼손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회가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어야 할 창조의 사명을 잊고 지내왔음을 회개하며, 생태적 정의를 실천

하는 공적 증인으로 거듭나자는 뼈아픈 신앙적 결단이자 선언이다.

신앙 고백이 된 생태적 실천
이러한 교단 총회의 방향성과 시대적 부르심에 부응하여, 광주벚엘교회는 2023년부터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확고하고 항구적인 비전 아래 '녹색교회 운동'을 전개해 왔다. 17년 이상 이어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핵심 표어를 생태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파괴된 지구를 돌보고 신음하는 피조물을 살리는 것이 곧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 사명임을 천명한 것이

일상에서는 교회 내 모든 공간에서 일회용 컵을 전면 퇴출하고 텀블러 사용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시켰으며, 사순절 기간에는 전통적인 금식 대신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탄소 금식'을 전교인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분기별로 본당의 화려한 조명과 대형 LED 스크린을 끄고, 전자 악기 대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녹색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안락함과 편리함 대신 불편함이 주는 거룩한 영적 깊이와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2026년 환경주일

사를 외부 감사로 초청하여 환경을 주제로 한 설교가 선포되었다. 주제적 메시지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마태복음 6:25~34)"라는 제목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창조 세계 보전의 사명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성도들의 영적, 생태적 각성을 뜨겁게 촉구했다.

본당 1층 로비에서는 생태적 메시지와 창조 신앙의 고백을 담은 19점의 캘리그래피 전시가 성도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버려진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가 너란히 열렸다. 특히 생



광주벚엘교회 3040교구 가족들이 줄기에 앞서 화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다.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잡고 있던 여분의 텀블러를 정성껏 기증했다. 수집된 텀블러들은 추후 필요한 곳에 나누어질

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창조 질서 회복 교육**

창조 세계의 회복을 향한 발걸음에는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유아부터 고학년부에 이르는 어린이 주일학교 부서들은 환경주일 맞아 특별한 공과 학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주일 교재를 활용하여 생태 교육을 진행했다.

실천의 하이라이트, 전교인 줄기
이날 오후에는 이번 환경주일 행사의 백미이자 실천적 하이라이트인 '전교인 플로깅(줄기)'이 펼쳐졌다. 오후 1시 본당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위임목사는 "우리가 거리를 걸으며 허리를 굽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이 활동은 단순한 청소나 캠페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또 하나의 예배'라고 깊은 울림을 주는 격려사를 전했다.

광주벚엘교회 성도들은 6개 교구별로 분할된 구역을 할애한 성경책도 기증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분할률이 높은 교회 비치용 성경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자원 순환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은 이번 환경주일에 청소년부 학생들도 장년 세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장년 행사와 동일하게 우산, 성경책, 텀블러를 모으는 수집 활동을 독자

이웃 주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등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생명 문화를 전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수거된 쓰레기는 오후 2시경 교회로 돌아와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꼼꼼하게 분리배출하며 모든 일을 맞아 특별한 공과 학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주일 교재를 활용하여 생태 교육을 진행했다.

생명 살리는 위대한 작은 발걸음
광주벚엘교회의 환경주일은 단순히 달력에 적힌 하루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도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성숙한 신앙적 습관의 발현이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다. 장년층부터 꼬마 아이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창조 질서 회복의 성경적 의미를 배우고, 기꺼이 허리를 굽혀 땅방울을 흘리며 동네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라는 거대하고 막대한 도전 앞에서 개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작고 미미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손을 맞잡고 걷는 이 작지만 진정성 있는 발걸음, 그리고 편리함을 포기하고 기꺼이 선택한 자발적인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모일 때,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종이컵 퇴출, 텀블러 사용...플라스틱·비닐 사용 자제 물·전기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선언 넘어 삶 속 실천 녹색주일 예배엔 스크린, 냉난방 끄고 가벼운 옷차림

환경주일 예배 후 7개 교구별 구역 나눠 줄기 동네한바퀴

다. 이 운동은 단순한 사회 운동(NGO)이나 캠페인 수준을 넘어, 잃어버린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벚엘교회는 당회 산하에 담당목사 직속 기구로 '녹색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강력한 실행 동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숙한 녹색교회 운동의 연장선에서, 지난 2026년 6월 7일 주일에는 전 교인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뜻깊은 '환경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환경주일 예배에서는 생태선교회를 전공하고 아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중인 이명석 목

소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적은 해설판을 함께 게시하여 성도들의 생태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일깨웠다.

오전 6시 30분부터는 1층 사무실 앞 부스에서 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향후 나눔을 위한 '녹색 물품 수집' 행사가 이어졌

예정이며, 이를 통해 텀블러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33배나 줄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환경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안 쓰는 우산을 모으는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모인 우산들은 훗날 급작스러운 우천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우산'으로 비치하여 폐우산 쓰레기를 줄이는 데 쓰일 계획이다. 더불어 상태가 좋은 성경책도 기증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분할률이 높은 교회 비치용 성경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자원 순환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은 이번 환경주일에 청소년부 학생들도 장년 세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장년 행사와 동일하게 우산, 성경책, 텀블러를 모으는 수집 활동을 독자



업사이클링 물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벚엘교회 성도들이 7개 교구별로 맡은 구역 환경정화에 나섰다.

- ▶ 조달청등록인증기업(최우수등급)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
- ▶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 보유
- ▶ 직접 수입을 통한 설계 / 시공 / AS 까지 직접 진행
- ▶ 음향 / 영상 공사 전문
- ▶ 타업체 LED 스크린 AS 가능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면 하나에 다 실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실적으로 쌓여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교외 환경에 최적화된 LED 스크린 시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을 더하는 선명된 화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

모든 시스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방송 영상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이노파크식스틴 마동 301호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B1센터 503호

H.P. 010-4138-7532 TEL 062-573-9997